

2011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11년 4월 임창순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창순상은 청명 임창순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평등·자유·인권의 실현과 평화·통일의 축전에 학술 또는 실천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게 이 상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간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요한 사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창순상을 주관하는 청명문화재단이 밝힌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정체성의 재확립을 위하여”라는 수상자 발표문은 실천적으로 대북지원이라는 협소한 틀에 매여 있던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훨씬 넓은 틀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그동안 해 온 사업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임창순상 수상은 우리 단체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창순상이라는 선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북지원의 지형은 전년도인 2010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내려진 정부의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사업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지속했던 농업축산과 보건의료 분야 등 개발지원 방식의 사업은 물자 반출이 완전히 막히면서 거의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함경북도 온성군의 어린이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만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한편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6년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및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아직은 헌 교과서를 재활용하는 모금 운동에 머물러 있지만 학교 현장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사업 내용을 알리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각 학교와의 유대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펴낸 2010 사업보고서에 “15년의 대북지원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억되는 2010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표현이 “16년의 대북지원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억되는 2011년”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곁에는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받은 임창순상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 단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 남과 북의 교류협력 확대와 평화적인 남북통합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다시금 불을 지피 주십시오!

1996년 창립 이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외침으로 시작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한 우리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인도주의운동, 민족화해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인도지원이 축소되면서 북한 동포들의 삶은 더 피폐해 졌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주의와 민족화해의 실현이라는 15년전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실현, 인권 신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각 분야별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여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개척해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의 대북지원 활동은 각 분야별 개발지원사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문화, 다양화된 사업들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방식 및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며 어린이, 산모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개발지원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과 북의 농군들이 함께 일군 논밭,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던 제약공장과 병원에는 북쪽 일꾼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당국과 국민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됐던 분야별 지원 사업들을 기필코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 우리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없으며 이는 그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며, 통일 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

동포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정책변화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 당국에 호소합니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대북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민간의 이러한 활동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녹여내고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활동이 민족화해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정권 출범 당시 우리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원칙을 되새겨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현 시기 남북 간의 최대 과제는 신뢰구축입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 지원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림과 동시에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님들께 호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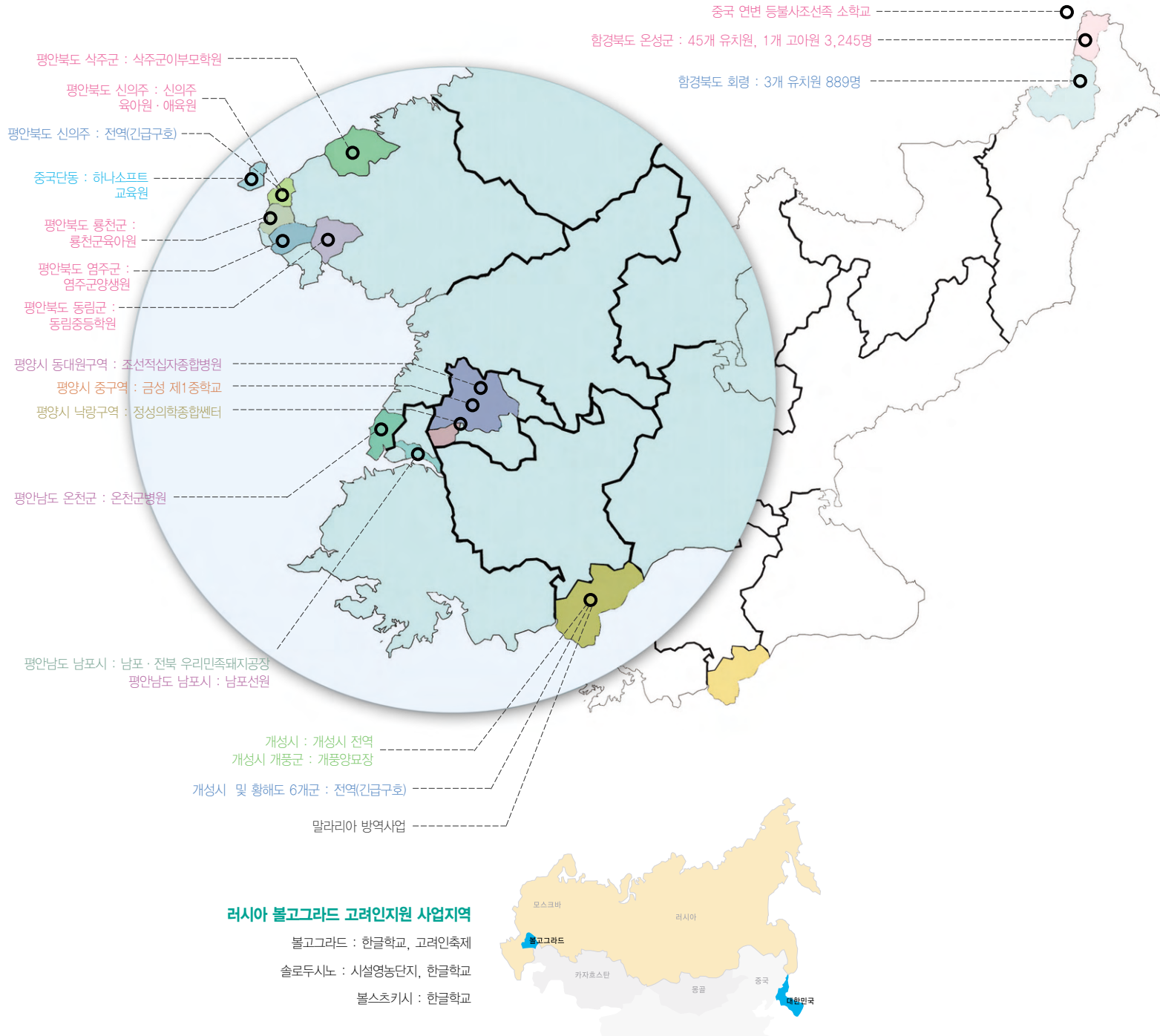
우리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이는 그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며, 통일 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난 시기 후원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민족화해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듯이 다시금 대북지원 운동에 불을 지피 주십시오.

2012년 격동의 한해를 맞이하여 그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냉정하게 돌아보되,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다시금 우리의 길을 가고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이 길에 국민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눔이 가는 곳

● 농촌현대화 사업 ● 축산협력 사업 ● 교육지원 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 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 긴급구호사업



북한 방문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 (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룡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2		1/2			
1999	8	29	2/13	4/10	2/6			
2000	19	79	8/48	8/20	3/11			
2001	20	106	14/85	5/17	1/4			
2002	24	212	20/203	3/7				1/2(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356	2/7				
2004	26	168	18/136	4/15	1/7	1/3	2/7	
2005	62	972	37/811	6/13	2/18	17/130		
2006	72	704	60/647		2/2	8/48	2/7	
2007	65	2,962	38/471		3/3	24/2,488		
2008	49	618	13/217	2/12	4/4	22/377	1/1	7/7(함북 온성군)
2009	25	84	9/59		4/4	2/11		10/10(함북 온성군)
2010	40	83	2/21		1/4	5/26		32/32(온성/회령)
2011	38	65	2/6			8/31		28/28(함북 온성군)
합계	469	6,445	243/3,075	34/101	24/65	87/3,114	5/15	76/77

2007년까지 한국국적 방문자 집계임. 2008년부터 취약계층 지원 재중동포들의 신의주, 흥천, 함북온성 등에 방문한 회수 포함함. 2011년 함북온성 방문을 제외하면 10회, 37명이 방북함.

물자지원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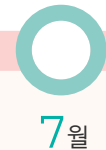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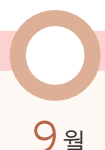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	234,491	1,401,859
합계	39,571,106	17,856,009	30,784,019	2,234,295	91,041,929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11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든 시간입니다.



- 0103 평화나눔센터 1차 라운드 테이블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 0107 인천시장 초청 간담회 (인천 송도파크호텔)
- 0114-15 사무처 워크숍
- 0119 주한EU 대사관 간담회 (주한EU 대사관)
- 0127 경기도 개성사업 간담회 (경기도 제2청사)



- 1202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1차 전문가 간담회
- 1208 말라리아 방역사업 평가와 2012년 사업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총9명)
- 1213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7차)
- 121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8차)
- 1222-28 '한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캠페인 (서울시 중학교 대상) 서울시내 163개 중학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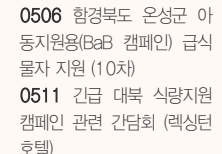
- 1102-04 2011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프레스센터) / 서머셋호텔 · 주제 :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1107-26 '한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캠페인 (고등학교 대상) · 서울시내 71개 고등학교 참여
- 1109 제68차 공동대표 회의 (가든호텔)
- 1110 제52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 발표 : 신영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116 The Elders 대표단(2명) 사무실 방문
- 1121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간담회 (프라자호텔)
- 1129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다시 날래 열다섯 우리민족' (사강대 공자)간담회
- 1130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6차)



- 0302 제67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 030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1차)
- 0304 2010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 0310-12 '2011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활동가대회' 참가 (DMZ 평화생명동산)
- 031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차)
- 0317 거례의 숲 정기총회 배재학술지원센터
- 031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3차)
- 0325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4차)
- 033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5차)



- 040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6차)
- 0412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 0413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7차)
- 0420 '북한 식량사정에 관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회의실)
-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8차)
- 0422 제6회 임창순상 수상 (프레지던트호텔)
- 0429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9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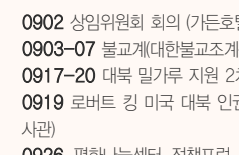
- 0506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0차)
- 0511 긴급 대북 식량지원 캠페인 관련 간담회 (렉싱턴호텔)
- 0512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1차)
- 0516 인천시 말라리아 기금지원 협약식 (인천시청)
- 0518-21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위한 7개 국제기구 및 단체 사전 협의 모임 (중국북경)
- 0519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2차)
- 0523 제1차 말라리아 방역 물자 지원 및 전문가(6명) 방북 (개성육로)
- 긴급 대북지원을 위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 0526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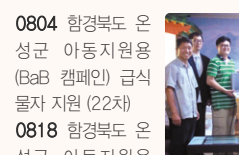
6개 대북지원 NGO 공동 주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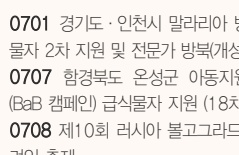
- 0603 '한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협약식(서울시교육청)
- 0609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4차)
- 0610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연석 회의 (회의실)
- 0614-17 BaB 캠페인 후원단체 (우고령정보통신 임직원 29명 중국연변방문
- 0616 제48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험 · 발표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5차)
- 긴급 식량지원 협의 차 개성방문 (3명)
- 0617 평화나눔센터 광주 정책포럼 · 주제 : 남북관계 현안과 전망 - 김정일 방중과 최근 이슈 · 발표 : 남문화 시사인 대기자
- 0621-25 BaB 캠페인 관련 임원진 26명 중국 연변방문
- 062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6차)
- 0627-11 부산대학교 지원봉사단 (32명) 러시아 블고그라드 방문
- 0630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7차)



- 0902 상임위원회 회의 (가든호텔)
- 0903-07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대표단 방북
- 0917-20 대북 밀가루 지원 2차 대표단 방북 (사리원)
- 0919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 초청간담회 (미대사관)
- 0926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50회 기념 정책토론회 (프레스센터) · 주제 :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 0930 대북 수해지원용 이동 내 북 2,500벌 지원 (개성 육로)



- 080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2차)
- 081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3차)
- 0819 말라리아 방역물자 4차 지원 및 전문가 방북 (개성)
- 0822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4차)
- 0825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5차)
- 0826 불교계 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방문 (3명)



- 0701 경기도 · 인천시 말라리아 방역물자 2차 지원 및 전문가 방북(개성)
- 0707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8차)
- 0708 제10회 러시아 블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 0706-12 대한의사회회 의료진 블고그라드 방문
- 0713 경기도 · 인천시 말라리아 방역물자 3차 지원
- 071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9차)
- 0714-19 '한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집중 캠페인 (초등학교) · 서울시내 590여개 초등학교 중 360여개 학교 참여
- 072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0차)



- 제49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역량개발을 위한 유엔 기구의 지원사업 현황 · 발표자 : 남상민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담당관
- 0726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종교 · 시민사회 모임' 밀가루 1차분 지원
- 072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21차)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며, 남북이 상생하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통일 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문 중



Annual Report 2011

위왼쪽 밀가루 300톤 개성육로 전달
위오른쪽 북한 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한 목소리, 북한동포를 향한 식량지원의 빛장을 열다

정부의 '5.24조치' 1주년을 하루 앞둔 5월 23일, 32명의 대북지원 NGO와 종교계 대표들이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후 대북 긴급 밀가루 지원 캠페인을 시작하여 두 달 만인 7월 26일, 밀가루 300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11차례에 걸쳐 총 2,500톤의 밀가루를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물자를 분배 확인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대표단이 평양을 경유하여 사리원시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굶주리는 동포를 위한 공동의 노력

2011년 들어 WFP 등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하루 배급량이 400g에서 190g으로 점점 줄어드는 등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을 통제하는 '5.24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민간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영·유아를 위한 영양죽, 분유, 영양빵 그리고 기초 의약품 등에 한해 그것도 선별적으로만 허용하였습니다.

남북이 적대하는 감정으로 치닫고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점점 더 해 갔습니다. 남북관계를 변화시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돕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공동 대응하여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지원단체와 종교계, 사회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과 공동으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긴급 식

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긴급 식량지원 캠페인 전개, 밀가루 2,500톤 전달

정부의 '5.24 조치' 1주년을 하루 앞둔 5월 23일, 32명의 대북지원 NGO와 종교계 대표들이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북 긴급 밀가루 지원 캠페인 추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긴급 식량지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급 캠페인은 정부의 식량 지원 불가방침으로 잠시 주춤거렸다가 여론에 밀린 정부의 승인방침으로 두 달 만인 7월 26일, 밀가루 300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11차례에 걸쳐 총 2,500톤의 밀가루를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지원물자를 분배 확인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대표단이 평양을 경유하여 사리원시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관한 이 캠페인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하여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국JTS, 기아대책, 어린이재단, 어린이어깨동

무, 평화3000, 남북평화재단 등 30여개 대북 인도지원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기금지원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참여하였습니다.

긴급 식량지원 캠페인, 대북 인도지원 확대의 계기

민간차원의 공동노력을 통한 긴급식량지원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면서 개별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단체별 방북도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보면 2011년 긴급 식량지원 캠페인은 대북 인도지원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리원시 주민을 위한 밀가루 300톤 개성육로 전달



이 아름다운 물자들은 단지 물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경을 넘어 먼 이국 땅-한국에서 안고온 겨레들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며 연변의 농촌조선족교육의 발전에 대한 절절한 기대이며 우리 같은 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 최진주(중국 연변 룡정시 동불사소학교 교장)



위왼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26명 중국연변 방문
위오른쪽 (주)고려정보통신 임직원 29명 중국연변 방문
아래 온성군 어린이 지원용 빵 생산공장

Annual Report 201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 갈등과 긴장의 벽을 넘다

2010년 11월 1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모든 대북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인도적 지원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았고 2011년 3월, 지원사업 중단 후 최초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 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이하 BaB캠페인) 지원물품 빵과 콩우유가루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후 2011년 12월까지 28회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빵과 콩우유가루, 국수, 생필품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

2012년 1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북한 동부 지역 4개도(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량강도)의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함경남도는 5세 미만 어린이 중 87%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함경북도와 강원도는 86%, 량강도는 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중 급성영양실조 환자는 17%에 달하며, 이

중 심각한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는 약 3%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영양실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북한의 대기근과 아사사태가 있었던 1996년도로 회기 하는듯한 모습에 아픔이 더합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북녘의 아이들, 지금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나눔이 절실한 때이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눔이 중단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 벽을 넘다

2010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어린이 돕기 캠페인 ‘BaB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성군의 105개 유치원, 1개고아원 6,562명의 어린이에게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을 매주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2012년 2월 현재, 남한의 단체와 개인 후원자들의 나눔으로 45개 유치원, 1개 고아원 3,245명의 아이들이 빵과 콩우유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1개씩 1주일분이 중국 도문과 함경북도 남양간 육로를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하루 1개의 빵과 콩우유가루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후원자 한분 한분의 최소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사이에는 아직 남은 갈등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지원 사업이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남북간 전쟁 위기와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후 모든 민간 교류와 대북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발생 때도 끊기지 않았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BaB캠페인’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인도적 지원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여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1년 3월, ‘BaB캠페인’이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를 통해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4월, ‘BaB캠페인’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 승인이 이루어졌고 중단되었던 민간급 첫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북녘 어린이를 향한 한분 한분의 마음이 갈등과 긴장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눔의 현장 방문, 중국 조선족소학교 지원

중국의 조선족자치주 ‘연변’,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후원자들의 나눔이 모이고 모여 북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변에는 ‘BaB캠페인’을 통해 북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분들이 방문합니다. 방문단은 온성군 유

치원 어린이에게 전달되는 빵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빵을 시식하고 도문세관을 방문하여 빵 실은 트럭이 온성으로 가는 과정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또한 조-중접경지역과 연변의 역사유적지(윤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등)를 방문하고 백두산을 등반하여 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분단과 역사를 알아가는 체험의 장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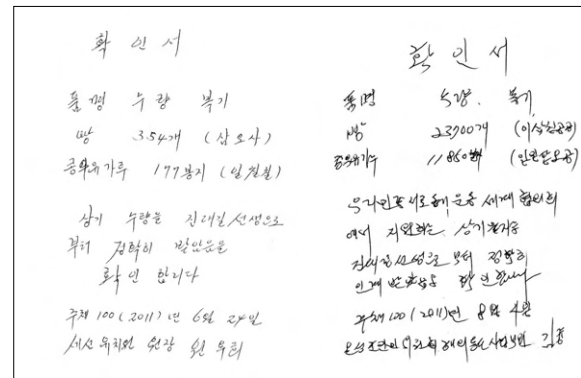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주)고려정보통신은 중국 연변 방문을 통해 조선족 아이들의 어려움을 접하고 2011년 연변 동불사에 위치한 ‘동불사조선족소학교’에 컴퓨터 7대 및 보일러 설치, 교육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온성군 4개유치원 어린이 300명과 ‘동불사조선족소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주)고려정보통신(대표:박선오) 임직원 29명이 방문하였고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영담,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2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2년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BaB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온성군 지역외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함께 중국 연변 방문 프로그램을 후원자 뿐 아닌 학생, 선생님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려 2011년 어려움 속에서도 응원과 나눔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후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에도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왼쪽 온성군 지원 물자 인수증(인민위원회, 유치원) 오른쪽 연변 동불사 조선족소학교 컴퓨터실



지난 2011년 7월 14일, 2009년부터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의 자문위원을 맡아주셨던 박재원 가천의대 교수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재원 교수님은 라오스, 콩고, 파파뉴기니 등에서 WHO 말라리아 자문관으로 활동 하셨습니다. WHO 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 셔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nnual Report 2011

위왼쪽 말라리아 방역물자 개성육로 지원 위오른쪽 지원물자를 확인중인 북측 기생충연구소 말라리아연구실장 아래 지원물자를 하역중인 모습(개성 봉동역)



최초의 광역지자체 공동협력사업으로 발전한 남북 호혜적 협력사업,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울 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긴급구호, 농업, 축산, 산림,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경기도와 함께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및 산림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개성지역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은 진행이 되지 못하였으나,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그간 남북협력사업은 일방적으로 북측에만 이익이 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북측은 대북지원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반면 우리는 남북간 신뢰 회복, 평화의 증진, 또는 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과 같은 매우 추상적인 형태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해북도 개성과 인근지역, 그리고 황해남도 해주 및 그 인근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2011년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은 남북 상호간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호혜적 사업 모델을 가시적인 차원에서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측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의 약 66%가 북측의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의해 감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보건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남쪽의 지원을 통해 남과 북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년, '11년 경기도 인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비교표

구분	경기도	인천광역시
2010. 11. 30 기준	815명	256명
2011. 11. 30 기준	388명	125명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황해북도 개성, 장풍, 토산, 금천 등 개성과 인근

지역 50만 명,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남북 공동방역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인천광역시가 황해남도 해주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최초의 광역지자체간 공동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강원도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어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3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동사업으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방역약품 지원물자

차수	구분	물자내역	수량
총 4차 - 5/23 (1차) - 7/1 (2차) - 7/13 (3차) - 8/19 (4차)	경기도	박토색(1kg)	1,500병
		말라리아 진단키트(test)	343,500개
		살충처리모기장(LLIN)	450,000㎡
		모기향(10개/통)	95,000통
		퍼머그린(1L/병)	1,300병
		휴대용초음파 진단기	2대
인천시	인천시	박토색(1kg)	120병
		말라리아 진단키트(test)	93,500개
		살충처리모기장(LLIN)	85,000㎡
		모기향(10개/통)	8,500통

2011년 사업은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총 4번의 방역 물자지원과 5회에 걸친 사업평가 및 협

의 방북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8월 19일, 우리 정부의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의료장비인 휴대용 초음파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휴대용 초음파기의 지원은 북측의 영유아 및 소아들의 간과 비장이 커지는(간·비 종대 환자) 증상을 조기 진단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평소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북측의 영유아 및 소아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될 경우 간과 비장이 커지는 증상 빈번히 발생하고, 북한에서는 의사가 손으로 검진(촉진)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져 간·비장 과열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 및 소아 감염 환자에게 대한 간비종대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초음파기의 지원이 간절하였습니다. 8월 19일 개성에서 만난 조선의학과학원 기생충연구소 김성룡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 남측에 특히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아이들 대한 생각이 각별한 것은 매한가지 인 것 같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호혜적 사업 모델을 발굴·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아쉽게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북한 산림 복구 사업 등을 재개하는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인천 말라리아 물자지원 1차 물자 전달식(임진각)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직접 헌 교과서 수거에 참여함으로써 작은 실천이지만 나눔과 배려의 봉사정신을 알 수 있고, 자원이 선순환 된다는 것과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기에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은초등학교 나성민 교사



Annual Report 2011

위왼쪽 헌 교과서를 모으는 광문고 학생들
위오른쪽 헌 교과서 수거에 참여한 서울월정초등학교 학생들
아래 집게차 수거모습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201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11년 헌 교과서 수거에는 7월 초등학교 358개교, 11월 고등학교 71개교, 12월 중학교 163개교가 참여하였으며, 수거한 재활용 자원을 판매하여 조성된 기금은 북한 어린이,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동포들을 돕는 일에 쓰였습니다.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1년 6월 3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임점택 서울교총회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간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한 헌 교과서나 참고서를 수거하고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급식지원,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교육지원,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등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 집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무심코 버려지는 헌 교과서나 참고서들이 모이고 모여 한민족 어린이들을 돕는 커다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재활용 자원 기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나눔 의식을 함양할 수도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동포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보냅니다

헌 교과서 수거는 먼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에서 각급 학교로 협조공문 및 실행계획을 발송하여 사업의 취지를 안내하고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는 참여 여부를 교육청에 알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참여가능 학교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전화작업을 통해 학교별 수거일정 및 방법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헌 교과서를 담을 수 있는 수거용 포대를 각 학교로 배포하고, 약속된 수거일에 수거업체와 자원 활동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과서가 담긴 포대를 수거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참여 학교에 대한 감사공문을 발송함으로써 헌

교과서 수거사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헌 교과서 수거는 한 해 4차례 진행됩니다. 초등학교는 학기가 끝나는 2월과 7월, 중학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그리고 고등학교는 수능시험 이후 11월입니다. 학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수거 대상이 서울시 학교 전역이다 보니 수거가 결코 쉽지 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과 일선 학교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마음으로 성원해주셔서 사업 첫해임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11년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신 학교측과 담당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심코 버려질 수 있는 헌 교과서를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부해주신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움의 손길도 또한 고맙습니다. 마련해 주신 성금으로 북한 어린이, 중국 조선족 학생들,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거가 방학 때 가능하다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덩고 추운 시기에 야외에서 수거에 최선을 다해준 자원 활동가분들의 노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추진 내용

시기	업무
4월	교육청, 교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간의 사업 협의 1차년도 대상 지역 확정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6월 3일	교육청, 교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사업 협약 체결 교육청 및 교총,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 초등학교 수거 일정 조정
7월 14~19일	초등학교 1차 수거
8월	초등학교 수거 결과 보고
9월	사업 중간 보고
10월	교육청 및 교총,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고등학교 수거 일정 조정
11월 7~26일	고등학교 수거 교육청 및 교총, 중학교에 공문 발송 중학교 수거 일정 조정
12월22~28일	중학교 수거 고등학교 수거 결과 보고

사업의 취지가 교육자로서는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임점택 회장

왼쪽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업무협약체결 오른쪽 헌교과서를 모으는 서울대은초등학교 학생들



농업축산/보건의료 협력사업

과거 북한의 핵실험으로 1년 만에 다시 찾은 현지 협동농장에서 남측 방문단의 손을 꼭 잡으며 “왜 이제야 왔냐”며 야속함과 반가운 마음에 눈시울을 적시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1

위왼쪽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중인 평양돼지공장(양돈장)
 위오른쪽 기초골조공사만 진행되고 중단된 남포산원 외래병동
 아래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항에 묶여있던 대북지원 물자



2011년, 정부의 대북지원 시계는 거꾸로 갔다

농업 축산 협력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창립 이후 북한의 농업·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축산 분야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대북 인도 지원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새로운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2010년부터는 대북 농업·축산 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민간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반출 및 방북 제한 조치로 인해 2009년 4월부터 북에 전달되지 못한채 인천항에 묶여 있던 농업·축산 지원물자는 9개월만인 2010년 1월 북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단순 식량 지원 또는 기초 의약품의 제외

한 모든 대북 인도지원 물자의 지원이 불허되었습니다. 물론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과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어느덧 16년의 역사를 갖게 된 민간 차원의 대북인도지원은 1996년 초창기 단순 식량 지원의 상황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약 1년까지 이어지는 잦은 단절과 재개의 과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면적인 중단의 상황이 장기화되기는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그간 민간단체들이 쌓아온 북측과의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축적해온 성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단절은 협동농장과 같은 실제 북한 현지 사업 현장의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으로 1년 만에 다시 찾은 현지 협동농장에서 남측 방문단의 손을 꼭 잡으며 “왜 이제야 왔냐”며 야속함과 반가운 마음에 눈시울을 적시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반도의 어떠한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도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지원이 남과 북의 신뢰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북의 신뢰 회복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내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협력사업

보건의료는 한 국가의 건강과 복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취약해진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병원현대화사업과 제약분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은 거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지원사업은 2008년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 이후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역시 2008년 종합품질관리실 설치를 마무리한 정성의학종합센터 지원사업도 2009년 동물실험실 건물의 외형만을 건설한 채 더 이상의 사업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사업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3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9년 이후 건설 물자 반출이 제한되면서 3층의 골조 공사만 마무리된 채 중단된 상황입니다. 남포산원에 대한 지원은 2010년 2월과 6월, 식용유와 의약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의 지원이 없는 속에서 자체로 공사를 계속해 최근에는 건물의 외양을 갖추고 일부 병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산모와 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단되어 있는 이들 사업의 재개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왼쪽 공사가 중단된 평양돼지공장(양돈장) 내부 오른쪽 공사가 중단된 정성의학종합센터 동물실험실



제가 고려사람이라는 인식이 한국말부터 시작했듯이 한국말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들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 러시아 블고그라드 거주, 고려인 동포 고가이 류드밀라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1

위왼쪽 사물놀이를 강습중인 한글문화교실
 위오른쪽 대한의사협의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의료봉사단
 아래 제10회 블고그라드 고려인축제, KBS 한민족동포 노래자랑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블고그라드 고려인동포사회

90년대 구 소련 붕괴 이후 여러 혼란한 상황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각지의 고려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재이주 정착한 곳이 블고그라드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0년 블고그라드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으로 기초 생활 및 의료지원,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 시설농업 지원사업,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제는 동포사회 스스로 단체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

: 한글 · 문화 교실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말과 문화를 거의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는 민족정체성회복 및 우리말과 문화를 체득하고 현지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교실에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과정을 중심으로 약 60여명의 동포학생과 현지인들이

우리말과 사물놀이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려인 학생을 정부 장학생으로 추천 선정하여,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블고그라드 현지 봉사활동을 통하여 고려인동포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음악, 미술, 태권도, 시설농장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여 청년세대의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고그라드 현지 청년모임인 <미리내>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등 문화교류사업, 우리문화 소개 및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농업교육 체험과 선진 농업의 교육장

: 비닐 하우스 농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려인들에게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농기술을 전수하여 재정착을 위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니콜라예브스키군과 레닌스키군에 각각 비닐하우스단지 조

성하여 시설농업 체험 및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 시절 농업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던 고려인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겨울이 길어 파채류 값이 비싼 현실에 맞추어 토마토, 오이 등의 시설농업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블고그라드 현지에 파견하여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10명의 고려인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시설농업 이론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의 농업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토마토 등을 생산하며 시설영농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10회 블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 KBS 한민족 동포 노래자랑

제10회 블고그라드 고려인축제는 2011년 7월 8일 블고그라드 음악홀에서 KBS 한민족 동포노래자랑으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KBS 방송국이 현지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가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우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려인동포들은 모국에서 온 가수들이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려인동포들과 현지인들의 우리 노래자랑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블고그라드시정부, 라스토프 한국어 교육원장 등의

축사와 부산대 봉사단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함께한 태권도시범, 사물놀이공연, 부채춤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 활동 및 대학생 봉사단 활동

2011년은 대한의사협의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의료봉사단의 고려인동포 의료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사회주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현지조사와 축제장을 찾은 동포들에 대한 현장 건강검진과 의약품 지원은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려인동포 청년학생들에게 격려금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남북의료협력위원회의 블고그라드 의료봉사단 참여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실태 파악과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확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대봉사단의 3년차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태권도, 사물놀이, 한글문화 교육, 고려인 농업 체험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단 활동에는 고려인동포 청소년 및 현지인 청소년 등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현지 언론 및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왼쪽 태권도를 배우는 고려인 동포들 오른쪽 부산대 해외봉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외국 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EU 집행위원회 대표단, NCNK(전미 북한협의회), 엘더스(The Elders), 로버트 킹 미대북인권대사, 기타 UN기구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대북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 기관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외국기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더 많은 기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국 국제회의의 종합토론
위오른쪽 국제회의에 참석한 외국기관 인사들
아래 2011 대북지원 국제회의

Annual Report 2011

UN기구, 양자기구, NGO를 아우르는 국제네트워크 구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3회를 맞이하며 국내외 대북지원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1 대북지원 국제회의

: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시작된지 16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참으로 많은 UN기구, 양자기구, NGO들이 대북지원에 동참하였고, 사업도 초기 주를 이루었던 식량지원에서 농업축산, 산림녹화, 보건의료, 아동, 교육 등 다양한 개발 지원사업으로 확대, 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북지원 기관 간의 협력이 그리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북 지원에 있어 남한 NGO들의 활동 비중이 점차 증대됐음에도 많은 국제 NGO 및 국제기구들은 남한 NGO의 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

버트재단과 함께 주한 EU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2009년부터 매 해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대북지원 단체간의 정보 공유를 돕고 단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2011 대북지원국제회의>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시금 악화되면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식량난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의 식량 지원 현황, 그 속에서 단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누고 향후 발전된 모니터링 방식, 더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찰하고 이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을 논의

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2011년 회의에는 더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년 참여했던 국제NGO와 전문가들을 비롯해 올해에는 클라우디아 로엘 WFP 평양사무소장, 라마리쉬나 UNESCAP 동아시아지역사무소장, 레베카 브라이언트 호주개발청 자문위원, 메이렛 국제적십자사 동아시아대표 등 다양한 성격과 대표성을 갖는 기관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WFP 사무총장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던 캐서린 버티니(Catherine Bertini) 전 WFP 사무총장이 '국제적인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의 동향: 북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캐서린 버티니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가 참석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회의의 성과를 보고하고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3회를 이어 오면서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명실공히 북한 지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에는 더 많은 평양 주재 기관들을 초청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천적인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1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11월 2일 <오프닝세션>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응과 농업 복구를 위한 국제협력	1부: 국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의 동향: 북한에 대한 함의 2부: 북한 농업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11월 3일 <세션 1> 북한 식량안보의 평가 및 모니터링의 경험과 교훈 <세션 2> 대북 원조기구 간 협력 활동의 사례와 발전 과제 <읍서널 세션> 2011 미국 NGO의 대북 식량지원 과정	
11월 4일 <세션 3>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경험과 국제협력: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세션 4>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발전 전략에 대한 평가 <세션 5> 종합 토론	

WFP 前사무총장 “지금은 대북지원 해야 할 때”



캐서린 버티니 전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일 “지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버티니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2011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한 공여 규모의 증가 추세에 비해 북한에 대한 공여 규모는 아주 적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중략)

또 “빈국에서 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가나, 온두라스와는 제한적으로만 성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지만 북한과는 거의 모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연합뉴스 2011년 11월 2일

국제회의에 참가한 패널들



정책포럼과 정책토론회의 지속적인 개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평화나눔센터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Annual Report 2011

위왼쪽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위오른쪽 광주지역 정책포럼
아래 2011 북한신년공동시설 분석토론회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공론 형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인도주의·남북통합·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서 시민사회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매 시기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포럼 및 토론회

평화나눔센터가 남북관계 및 대북지원에 대한 공론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포럼이 2011년 9월을 계기로 8년만에 50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정책포럼은 서울을 벗어나 광주에서 2차례, 부산에서 1차례 개최되는 등 처음으로 지방에서도 열렸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또 2011년 상반기 북한에 식량 상황에 대한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포럼과 정책토론회는 2011년 한 해 동안 11회에 이릅니다. 평화나눔센터의 이러한 활동들은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사업

2008~200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동연구사업과 2010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지원으로 “2010 북한개발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2011년에도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연구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동연구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방안(수원국의 역량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연구)’를 마쳤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지원으로 2011년 6월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모사업으로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부문(NGO, 기업)의 활동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연대활동

평화나눔센터는 2010년 하반기부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

원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개발지원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의 기획과 운영에 참가, 북한개발지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과정은 2011년 말까지 3기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외 평화나눔센터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자 10월 22일(토)~23일(일) 양일간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7개와 이미경의원 등 국회의원 33인과 공동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현재의 남북 대결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북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각 분야별로 대북지원 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평화나눔센터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2011년 정책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

항목	일시	주제	비고
제22차 정책토론회	1월 3일	2011년 북한 신년공동시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 주최
제48회 정책포럼	6월 16일	김정일 방종과 북중 경협	
제49회 정책포럼	7월 21일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현황	
제50회 정책포럼 기념 정책토론회	9월 26일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제51회 정책포럼	10월 18일	한국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정책에서의 한국 NGO 역할	
제52회 정책포럼	11월 10일	영유아지원사업의 평가와 향후 전망	
광주지역 1회 정책포럼	6월 17일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전망	
광주지역 2회 정책포럼	10월 26일	한반도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부산지역 1회 정책포럼	10월 24일	대북지원사업 현장 이야기	
민간단체 라운드테이블	4월 20일	북한의 식량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린이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 주최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5월 26일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황 분석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정책포럼 50회 기념 정책토론회



10년의 성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사단법인 우리민족'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작한 첫째,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힘찬 걸음을 단였습니다. 그 걸음에는 변하지 않은 동포에 대한 사랑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함께 했습니다.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1

10년의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

중국 민족학교 교육교류협력사업

우리민족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조선족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족학교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민족학교 교육교류사업은 결손율이 60%에 이르는 조선족 동포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방과후교실을 조성하는 사업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도문제2소학교(두만강 소학교-교장 김명숙)에 교실 한 칸을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교실(행복의 집)을 조성했고 이곳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충 학습과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쳐 민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문시 교육당국과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도문시교육국간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교류 토대를 구축한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민족은 2012년에도 방과후 교실 조성을 통한 방과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힘쓸 계획이며, 특히 조선족학교 교원 국내연수 진행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교육사업

우리민족은 현교과서 수집운동 등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재활용 통일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DMZ 일대 분단현장을 돌아보며,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청소년 눈높이 통일체험학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대상 통일기행과 청소년 대상 통일캠프, 대학생 대상 동북아투어(백두산 통일기행) 등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긴급 밀가루 지원

우리민족을 비롯한 '광주시민 통일쌀보내기 운동본부'는 지난 9월 2일 개성 육로를 통해 밀가루 54톤을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유치원 등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 밀가루는 2010년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모아진 광주시민들의 귀중한 성금 3,400만원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7일~20일 이재봉 사업국장이 대북지원 밀가루 분배 모니터링을 위해 중국을 거쳐 평양과 사리원시 등을 방문했고, 사리원시의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등에 밀가루가 분배된 상황을 지켜보고 돌아왔습니다.



위왼쪽 광주시교육청 중국도문시교육국 교육교류 협약식
위오른쪽 광주지역 청소년 통일캠프(임진강)
아래 밀가루 54톤 개성육로 지원



위왼쪽 제1회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
위오른쪽 저탄소녹색운동 장학금증서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1

부산경남지역에서부터 동포사랑과 통일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걷기대회를 비롯한 헌책수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평화통일 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는 지속사업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불어라! 평화와 통일의 바람!

제1회 평화통일 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 개최 (2011. 5. 28)

지난 5월 28일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부산 지역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최로 <제1회 평화통일 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Let's return to 6.15' 라고 적힌 티셔츠를 나눠 입고 부산 초읍에 위치한 성지곡 수원지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경품 추천행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지역에서 '평화통일 선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걷기 대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운동

- 부산시교육청 불우학생돕기 장학금 전달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불용 도서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학교 저탄소 녹색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7월 여름방학과 12월 겨울방학 기간 학교 불용 도서를 수거하였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학교 저탄소 녹색운동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복지원금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합니다.

어린이 겨울 의류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

털점퍼, 바지 등 어린이 겨울 의류 435벌(시가 1천3백만원 상당)을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장하는 복지관으로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 옷들은 중견 의류업체인 B사에서 우리단체 운영 수익금으로 사용하라고 보내온 새 옷들입니다. 그러나 기증된 옷을 운영수익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사업 언제든 착공할 준비 완료

지난 2008년 8월 북측 민화협과 합의를 교환한 5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태양광전지판 등을 모두 확보하여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는 사랑 운동'을 모토로 1997년 11월, 55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 이모작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밀가루, 강냉이 등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용 신발, 자전거, 지붕 자재 등 다양한 물자를 북측에 전달하였습니다.



Annual Report 2011

위왼쪽 미림학원 방문
위오른쪽 강원도 원산의 중등학교 방문
아래 옥수수지원 확인서



대륙을 넘는 동포를 향한 사랑의 실천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는 사랑운동'을 모토로 1997년 11월, 55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초기 이모작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밀가루, 옥수수 등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용 신발, 자전거, 지붕 자재 등 다양한 물자를 북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평양과 강원도 어린이들에게 밀가루 50톤과 생필품 지원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1년, 평양 애육원과 미림학원 등 어린이를 돕기 위해 달라스 교회와 교민 교회, 지역 교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2011년 10월 1일, 단동-신의주 육로를 이용하여 밀가루 5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평양 애육원과 미림학원을 방문하여 아코디언, 양말 1,000켤레, 비누가루, 축구공 등을 함께 지원하였고 평양 애육원에서는 직접 아이들에게 솔로몬왕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강원도 원산의 강원도인민병원과 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식용기름, 전등전구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10월 평양 방문시, 지속적인 식량지원을 위해 평양시내에 식당운영과 강원도 육아원, 애육원 지원, 평양시내 영어학원 설립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미국 달라스 본부는 평양 애육원과 미림학원, 강원도 원산 중등학교 등에 옥수수 150톤과 국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1차 5월 옥수수 50톤 지원을 목표로 현재 모금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사업보고서는 여러분의 지지와 나눔, 충고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속에서도 남과 북의 평화와 만남을 염원하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01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1년은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2012년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담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제한된 지면으로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201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보고서는 바로 여러분의 지지와 나눔, 아낌없는 충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락동교회 청년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북관계 역시 경색되어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그 선두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김영호 (갈릴리교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창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개선, 발전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민족>에 후원하는 작은 정성이 북측의 어려운 동포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그 순간을 향하여, 우리민족 파이팅~!!

남산국제유치원 크리스틴 레이먼트 원장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점에 있어 북한 어린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도 그저 친구일 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정성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윤태호 ((주)웨스턴테크닉 대표)

우리가 모은 이 작은 정성이 소중하게 사용되어 북한의 한 어린이라도 배고픔을 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성식 (한라공조 생산부)

이념을 떠나 같은 피를 나눈 동포로서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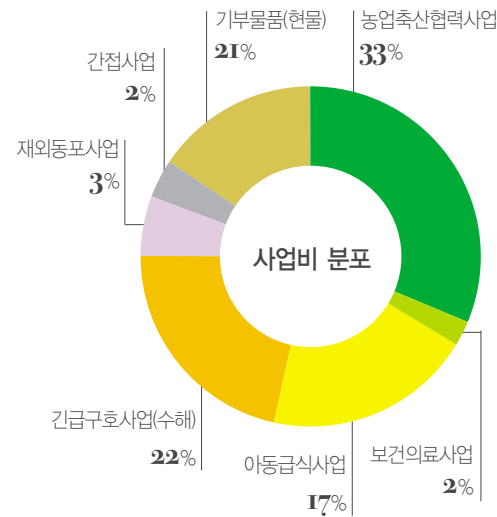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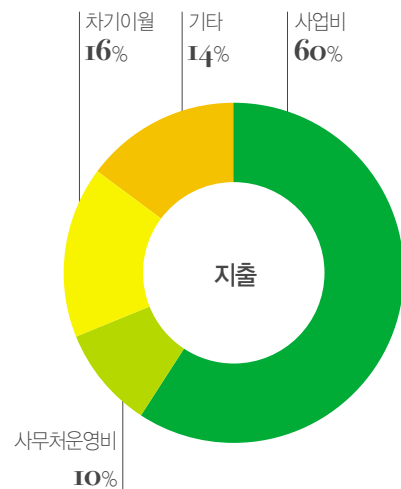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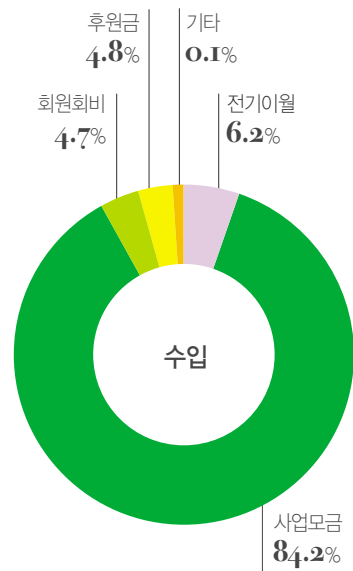


2011 결산보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하는 사람들

수입	(단위 : 원)
항목	금액
전기이월	572,026,393
모금	2,205,249,864
농업축산협력사업	1,450,374,278
보건의료협력사업	110,000
취약계층지원사업	447,076,046
긴급구호지원사업(내복)	13,810,000
재외동포지원사업	13,297,000
한교과서수거사업	76,881,640
일반모금	168,700,900
기부물품(현물)	35,000,000
운영비	316,278,836
회원회비	177,914,620
후원금	138,364,216
기타수입	5,020,859
합계	3,098,575,952

지출	(단위 : 원)
항목	금액
사업비	2,134,777,860
농업축산협력사업비	1,443,585,188
보건의료협력사업비	106,530
취약계층지원사업비	428,071,168
긴급구호지원사업비(내복)	13,495,433
재외동포지원사업비	18,413,409
한교과서수거사업	32,821,797
간접사업비(정책연구사업비 등)	163,284,335
기부물품(현물)	35,000,000
운영비	346,629,135
기타지출	34,687
차기이월	617,134,270
합계	3,098,575,952



고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불교방송 이사장 / 석왕사 주지)
 윤여두 (주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이일영 (R.I Korea 상임의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공동대표
 고희선 (주농우바이오 회장)
 김병준 (양천사화복지법인 대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부총장 / 정의과 교수)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대표)
 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의대 총장)
 손진우 (삼용화성 회장)
 윤장현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용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 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 범어사 주지)
 정의화 (국회의원 / 국회부의장 / 새누리당)
 천정배 (국회의원 / 통합민주당)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평화나눔센터
 이종무 소장
 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동진 (한국신학연구소 연구원)
 김태균 (이화여대 교수)
 문경연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사무국장
 서명희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복철 부장
 황재성 부장
 오형윤 간사
 이영재 간사

광주전남지부

고문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 (소비자매원 이사장)

이사장
 윤장현 (광주리더십센터 이사장, 아이안과 원장)

사무처

김영삼 사무처장
 이재봉 사업국장
 박효정 간사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정 여 (범어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이 영 (前 부산시의회 의장, 現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 대표이사)

공동대표

이향순
 조기종 (조기종 치과의원)
 주병호
 차상조 (로덴 치과의원)

사무처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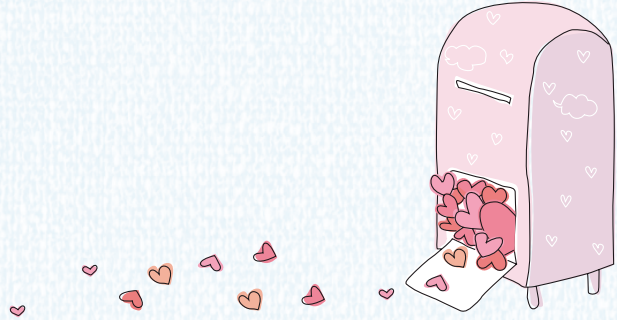
러시아볼고그라드 사무소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 부회장
 박엘레나 총무
 류슬라브 감사

시설농업현장사무소
 김아파나시, 김알렉세이 (솔도두시노지역 담당)
 김싸샤, 이아나폴리 (레닌스키지역 담당)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유)명건설 (유)세화관광여행사 (유)스마일기획건설 (유)행복한 푸드산업 (주)고려정보통신 (주)대용파마텍 (주)디에이블커머스 (주)리치스톤 (주)비
 아다빈치 (주)삼성파워일렉트릭 (주)세진산업개발 (주)신도데이터통신 (주)여행이야기 (주)지담종합건축사 (주)창대산업 (주)차이엔지 (주)클린피에
 스엠 가락동교회 감복조 강경중 강경현 강남준 강달호 강대균 강대현 강동완 강동한 강동혁 강병수 강병태 강삼용 강석은 강선미 강섬부 강성
 구 강승원 강승희 강신 강신우 강원호 강은향 강익범 강인철 강정미 강정음 강지영 강창구 강채원 강철희 강춘원 강필희 강필희 강혜경 강혜
 영 강혜영 강희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진TRM 고평현 고권석 고기은 고기철 고명진 고봉균 고석주 고세량 고수석 고승일 고영복 고
 영삼 고영아 고유민 고이석 고인해 고재철 고정수 고정환 고진광 고진아 고창훈 고천숙 고천심 고철호 고희갑 공용택 공은영 광연실 광영한
 광정란 광채원 광철 광현 구국모 구수영 구영주 구윤경 구은경 구정희 구종모 구종우 국민호 국혁 권병오 권보미 권숙희 권승언 권영노 권영
 운 권오규 권오근 권오근 권오훈 권익산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권차현 권태진 권혁민 권현무 권현진 금강산닷컴(주) 금강LEB 금취식 길기관
 길창배 김갑룡 김갑수 김갑식 김강민 김강훈 김강희 김경년 김경돌 김경란 김경란 김경수 김경재 김경태 김경표 김경화 김계순 김공련 김관식
 김광국 김광아 김광열 김광진 김구 김구철 김구현 김궁치 김규진 김근섭 김근순 김근영 김근우 김금순.이호준 김금평 김기곤 김기도 김기동
 김기영 김기원 김기은 김기판 김길자 김길철 김길태 김나눔 김나홍 김당 김대관 김대성 김대영 김대영 김대영 김대중 김덕수 김도규 김동광
 김동규 김동근 김동림 김동분 김동우 김동천 김동현 김동환 김동휴 김두환 김만수 김만진 김만태 김만호 김맹기 김명구 김명숙 김명신 김명연
 김명자 김명진 김문혁 김미홍 김민근 김민석 김민성 김민제 김민제 김민희 김방규 김병규 김병규 김병수 김병준 김보경 김보연 김봉규
 김부도 김부린 김삼수 김삼택 김상근 김상득 김상범 김상수 김상식 김상용 김상용 김상현 김상호 김석진 김석향 김선명 김선미 김선배 김선숙
 김선옥 김선주 김선창 김선희 김선희 김설자 김성건 김성도 김성렬 김성봉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숙 김성오 김성옥 김성재 김성진 김성철
 김성해 김성희 김세권 김소라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경 김수암 김순옥 김순우 김순한 김승진 김양수 김양숙 김연옥 김영관 김영규 김영균
 김영근 김영득 김영모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영재 김영종 김영주 김영표 김영호 김영환 김옥영 김완배 김용관 김용덕 김용민 김용복 김용연
 김용재 김용주 김용현 김용화 김용희 김우영 김우전 김우중 김원곤 김원국 김유경 김윤기 김윤기 김윤미 김윤철 김은경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은재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응근 김응상 김익곤 김이향 김인선 김인선 김일성 김일환 김자람 김장권 김장연 김장훈 김재광 김재기 김재성
 김재욱 김재준 김재철 김재혁 김재호 김정 김정기 김정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인 김정현 김정환 김정희
 김제호 김종갑 김종갑 김종관 김종구 김종문 김종비 김종순 김종열 김종왕 김종찬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종혁 김주영 김주태 김주학 김주호
 김주환 김준모 김준석 김준영 김준현 김중수 김중호 김지선 김지숙 김진경 김진관 김진백 김진식 김진영 김진태 김진현 김진현 김창곤
 김창수 김창연 김창영 김태겸 김태순 김태평 김태환 김학경 김학노 김학성 김학신 김학진 김한울 김해중 김해진 김혁제 김현 김현미 김현삼
 김현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우 김현정 김현진 김현희 김형문 김형순 김형중 김혜경 김혜자 김혜중 김호식 김호일 김홍석 김홍진 김화태 김신부

김효정 김희곤 김희중 김희진 나병만 나선경 나선길 나영진 나영석 나원연 나종문 나종업 나창윤 남미림 남상돈 남세현 남장현 노관숙 노금호
 노승일 노업순 노인선 노정환 노제승 노춘봉 노태완 노형래 노호균 대한치과의사협회 도규현 도재영 동방의밖 은빛둔전교회사회부장 라병금
 류덕용 류병욱 류수빈 류승현 류연석 류영준 류용성 류이근 류주현 류현선 류화자 류희웅 마경화 모터114 목주승 문경숙 문경순 문근영 문근
 재 문미영 문민 문상규 문석규 문성권 문성권 문성옥 문수정문영식 문용식 문용식 문정숙 문정호 문주성 문주연 문태환 민경기 민경태 민순옥
 민태원 민항석 민현주 박강호 박건 박경관 박경국 박경호 박경환 박계용 박계윤 박공우 박귀순 박금희 박기호 박나정 박남수 박남수 박남용
 박덕환 박동우 박동호 박만승 박명기 박무영 박문순 박문식 박미경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화 박민선 박민옥 박병무 박병섭 박병우
 박복영 박상용 박상욱 박상일 박상일 박상희 박석양 박선숙 박선오 박성기 박성림 박성은 박성일 박성준 박성찬 박세진 박소희 박수진 박순
 박순성 박순섭 박승호 박애스터 박연규 박영근 박영주 박영철 박요순 박요순 박용권 박용수 박용주 박원규 박유중 박윤선 박윤훈 박은영 박은
 하 박익용 박이현 박이환 박인곤 박인숙 박인순 박인준 박재규 박재묵 박재완 박재호 박정근 박정란 박정숙 박정숙 박정식 박정우 박정자 박
 중근 박중근 박중록 박중섭 박중원 박중윤 박중의 박중호 박중호 박중환 박주현 박지연 박지용 박지훈 박진이 박찬수 박태신 박표균 박향미
 박현경 박현석 박현철 박형근 박형준 박형중 박혜영 박홍숙 박홍순 박홍열 박희순 반치범 방석환 방양수 방재만 방준일 배대환 배덕호 배동웅
 배명용 배상수 배선규 배성희 배소영 배수현 배은혜 배인기 배향란 백낙서 백낙청 백도인 백정은 변선에 변은경 봉미란 빙인섭 사랑의채널(갈
 릴리교회) 상록촌수녀원 서기원 서동화 서명호 서민원 서봉은 서연우 서연 우서옥주 서정숙 서형교 서혜란 서희순 서희정 석동수 석민경 석상
 근 석왕사 석찬희 선봉규 선영숙 선정아 설인혜 성낙준 성도경 성열찬 성완호 성외관 성현주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덕현 손삼국 손승 호순
 영주 손주현 손진책 송경민 송두현 송명옥 송민규 송민선 송상용 송상윤 송시현 송용석 송운학 송은지 송인규 송재석 송재천 송정배 송정운
 송정호 송지섭 송춘섭 송태규 송형규 수원명성교회 시티성형외과 신기호 신대걸 신대현 신동석 신동창 신동해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상문
 신수억 신수임 신엽교회 신용철 신은경 신정식 신준석 신진현 신진호 신현섭 신혜정 신희수 심경란 심말선 심재규 심재원 심재정 심하림 심현
 용 심현주 심현희 아차도교회 안귀녀 안규식 안동호 안동희 안명일.임침빈 안명화 안민식 안상철 안상화 안석희 안성근 안세봉 안승열 안승자
 안약천 안영숙 안예상 안재형 안정덕 안정식 안정훈 안종금 안종출 안준상 안현성 안형재 안효진 양경진 양관승 양구(양승봉) 양근성 양문수
 양미아 양미화 양순환 양어거스틴성 양영아 양우성 양윤정 양인보 양재복 양재원 양주용 양진선 양해준 양현석 양화식 양효정 양희석 어용철
 엄기철 엄용수 엄주일 엄규현 엄동현 엄철영농조합법인 부광축산 오경륜 오계환 오동일 오동훈 오만수 오명섭 오문택 오민준 오선연 오성수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형 오승현 오예슬 오용섭 오웅성 오이경 오정진 오준희 오태정 오현광 오형석 오혜근 오화선 옥용호 온강민 왕정
 찬 우광택 우대성 우성호 우종호 원동오 원준남 원형복 원호진 위대현 위성차 위은량 유근춘 유근호 유남길 유명량 유명희 유명경 유방용 유
 병철 유새벽유새날 유성식 유승주 유승희 유시민 유연미 윤희희 유윤숙 유은향 유인숙 유인용 유재욱 유재호 유종석 유지수 유지상 유피에스
 시스템(주) 유하경 유희권 육근범 윤광운 윤기홍 윤도희 윤두형 윤미화 윤방원 윤병현 윤서영 윤석윤 윤성진 윤성진 윤승림 윤시원 윤엄석 윤
 여두 윤영복 윤영선 윤용근 윤은주 윤자영 윤재희 윤정현 윤정희 윤종식 윤종원 윤주호 윤지현 윤지현 윤창빈 윤창섭 윤창원 윤태호(웨스턴테
 크닉) 윤혜정 윤희철 이강기 이강찬 이강희 이경래 이경미 이경재 이경진 이경찬 이경희 이광훈 이국립 이규 이규문 이규봉 이규설 이근덕 이
 근태 이근행 이금수 이금원 이기경 이기종 이기호 이기화 이길호 이남재 이남철 이대식 이대호 이동석 이동섭 이동영 이동원 이동현 이동호
 이두복 이리나 이리중앙교회 이명수 이명천 이명환 이목희 이무철 이미래 이민성 이민영 이병 이병동 이병재 이병진 이병춘 이병학 이상업 이
 상재 이상준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훈 이석용 이석준 이선 이선규 이선장 이선정 이선주 이선호 이선화 이성기 이성만 이성민 이성수 이
 성주 이성철 이성호 이세준 이수구 이수구 이수연 이수정 이숙자 이숙희 이승곤 이승만 이승영 이승우 이승현 이아미 이양재 이연하 이연주

이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선 이영수 이영숙 이영주 이영철 이영환 이영훈 이영희 이옥순 이용균 이용범 이용선 이용선 이용암 이용연 이용호
 이우영 이운학 이원민 이원보 이원욱 이유열 이윤관 이윤상 이윤환 이은 이은경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용세 이인덕 이인수 이일선 이일양
 이일영 이일영 이장원 이재학 이재현(밝은세상) 이재희 이점윤 이정기 이정미 이정민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엽 이정옥 이정주 이정
 철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권 이종규 이종명 이종무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섭 이종성 이종안 이종주 이종학 이주철 이주형 이
 준동 이준희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하 이진권 이진섭 이진탁 이찬우 이찬웅 이창재 이창훈 이채경 이채린 이천권
 이천환 이춘도 이춘삼 이춘묵 이춘호 이태주 이필원 이하나 이학수 이한 이한결 이한솔 이한택 이현경 이현석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해란 이해옥 이해원 이해정 이호영 이홍돈 이홍우 이홍준 이황복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익산효요양병원 임강
 택 임건재 임광호 임금숙 임기윤 임동권 임동선 임문희 임미옥 임미자 임병수 임병철 임선영 임세진 임영수 임영진 임옥현 임완민임원빈 임
 인기 임정원 임재민 임재일 임정애 임지훈 임창영 임춘수 임평학 임한직 자행스님 장길수 장명봉 장문호 장민환 장범식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준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재영 장준호 장지식 장춘용 장형수 장환빈 전극재 전기범 전기철 전달수 전미란 전범권 전병은
 전병태 전병희 전석재 전성관 전성희 전소영 전애숙 전영미 전영일 전영일 전용완(LGCNS) 전용운 전일순 전정수 전정희 전종수 전진희 전체
 남 전향이 전해린 전효원 전훈 정건시 정경옥 정경훈 정계현 정광례 정광수 정극철 정근 정근영 정근나 정기석 정기운 정기훈 정동학 정동혁
 정란아 정명준 정명환 정미영 정미혜 정민 정병헌 정상모 정상원 정석 정성경 정성호 정성희 정수근 정수범 정수준 정수현 정수희 정순지 정
 승혜 정아름 정연실(송경평) 정연웅 정연준 정연호 정영숙 정영철 정은 정은미 정인성 정인준 정재민 정재욱 정재원 정재환 정정욱 정정태 정
 종원 정종현 정중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현 정지혜 정진영 정찬광 정창수 정천우 정태규 정태은 정한성 정해렬 정해문 정현곤 정혜숙 정혜인
 정홍상 정희범 정희인 정효진 정흥귀 제해성 제해준 조갑식 조기봉.세운 조대엽 조두연 조두형 조만용 조매경 조봉관 조석희 조선아 조선영
 조성숙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연희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균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상 조은희
 조응원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주원 조준혁 조중식 조지현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한범 조해기 조향미 조현 조현영 조현진 조현호 조형준
 조형준 주관수 주로미 주송순 주우현 주원섭 주재열 주현기 주희옥 지선경 지용수 지준호 지태석 진관스님 진상호 진양숙 진영배 차규화 차현
 애 차형철 채귀선 채병철 채송화 채우혁 채현숙 천봉실 천연희 천정배 최경미 최경인 최광림 최규원 최기수 최기천 최문석 최병륜 최병희 최
 사라 최성범 최세문 최수자 최수진 최승희 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양욱 최어진 최영림 최영신 최영자 최영희 최용식 최우정 최윤식 최윤실
 최은준 최을규 최인규 최인엽 최재근 최재문 최재원 최재천 최정환 최정희 최중대 최중철 최준수 최준혁 최지은 최진욱 최창윤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희송 최희은 탁도웅 탁병섭 푸른초장교회 하성환 하세연 하승창 하정현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농정신문 한
 국자원복지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녹희 한다현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휘 한동희 한두희 한상균 한상만 한상철 한서정 한성희 한순호 한승
 업 한영숙 한예린 한원택 한윤규 한은혜 한인숙 한인숙 한정화 한종수 한지섭 한진옥 한창균 한창현 한청택 한하니 함기문 함영준 함용운 함
 정우 허경기 허귀석 허남순 허설 허원종 허은이 허응태 허인웅 허정 허준웅 현관송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정희 현종스님 현종윤 현홍준 호
 영진 홍구표 홍기호 홍란희 홍란희.최은서 홍면기 홍명석 홍미옥 홍삼표 홍상운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숙희 홍의 홍재삼 홍제표 홍
 준석 홍현기 환성스님 황계연 황권주 황금철 황대운 황대철 황명필 황병규 황성주 황승욱 황영승 황원기 황의중 황인선 황재성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창규 황현택